

元老科學技術者의 證言

〈 2 〉

地質學者가 되기까지의 動機와 그 背景



朴 東 吉 博士篇

—完—

■ 京城鑛專教授로 發令

1930년 5월 歸國한 나는 먼저 總督府 學務局 문을 두드렸다.

나를 처음보는 學務局長은 어느 職場을 希望하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京城高等工業·水原高農·法學專門學校 등 세 專門學校뿐인데다 그나마 地質學科는 한군데도 없었다.

그래서 唯一하게 鑛山科가 있는 京城高等工業學校를 希望한다고 말하자 學務局長은 朝鮮恩賜記念科學館囑託 및 京城高等工業學校 講師로 兼任發令을 내줬다고 하였다. 하는 수 없이 이를 受諾하고 돌아온 나는 그해 6월부터 두 곳에서 일을 하게 됐다.

南山에 있었던 現 科學館의 前身인 당시 恩賜記念科學館은 첫 出勤한 내게 큰 失望을 주었다. 그곳의 所長은 日本人 海軍准將이였으며 하는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고작 物理·化學 器具 數種만 진열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囑託인 내 月給은 70원, 京城高等工業學校에서 받는 것까지

一百餘원이 되어 내 生活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었으나 앞날을 위해 科學館 業務보다 學校講義에 열중하기로 했다.

京城高等工業學校學生은 전부 日本人이었고 韓國人 學生이라고는 후에 石炭公社理事를 歷任한 白雲홍씨 한사람 뿐이었다.

이들 日本人 學生들은 講義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면 빈정대기 일쑤고 또 學校當局은 當局대로 내가 韓國人선생이라 해서 나의 授業方法과 態度에 대해 항상 뒷 調査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講義시간이 되면 더욱 神經이 쓰여 졌으나 이들에게 흠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準備도 철저히해서 學生들 앞에 섰다.

이런 結果 就任하던 그해 12월 講師에서 助教授가 되었다. 助教生活 滿 7년되던 1937년 4월 지금의 서울工大前身 京城鑛山專門學校 教授 任命을 받게 됐다.

당시 教授는 高等官이라 해서 日本內閣으로부터 辭令狀을 받는다. 또 대동아전쟁이 한창일때라 教授는 軍服을 입고 帽子엔 國화꽃 마크를 달고 앞가슴엔 高等官 標識인 빨간리본이 있어 學校正門에 들어 서기가 무섭게 모든 守衛들이

번적일어나 敬禮를 붙인다. 亦是 내가 지날때도 例外일 쭤가 없다. 그들 日本人守衛 들이 不動 姿勢를 한 채 내게 敬禮를 하면 어깨가 으쓱해 지고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지금 돌이켜 보건데 鑛山專門學校에서도 내 講義는 매우 훌륭했으리라 생각된다.

鑛山專門學校 當局은 教授들에게 筆記式 講義를 止揚하고 2年 6個月間 該當 專門學科教材를 만들도록 했다. 이래서 나도 高等鑛物化學 책을 쓰고 그 教材를 基準으로 講義에 臨했다. 이때 學生들은 教科書도 보지 않고 白墨만가지고 하는 내 講義에 感歎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날 그날 가르칠 것을 외우다시피하여 講義를 하므로 教科書와 똑 같았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뒤에 앉아 있는 이들 몇몇 學生중엔 내 講義를 잘 듣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中學을 마치고 進學한 學生들은 내 講義에 熱中하나 日本 中學을 마치고 入學한 學生들은 뒷자리에 앉아 韓國사람 講義라고 外面하는 것 같아 잡자기 質問을 하기도 하고 試驗엔 落第點數를 메기기도 했다. 그제서야 그들 學父母들은 내집까지 찾아와 求濟해 달라고 애 걸부절하나 이미 때는 늦은 것.

教授·學生 모두 日本사람 틀바구니에 位置한 나는 그와같이 校則이나 講義에 철저히 않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기가 困難했을 것이다.

■ 코발트鑛의 迅速鑑定法 特許도 받아

이같이 波瀾曲折의 講壇生活속에서도 나는「코발트鑛의 迅速鑑定法 特許도 받아 教授로서의 基盤을 점차 構築해 갔다.

또 매년 日本·九州等地的 學者들이 모여 地質·鑛物관계 研究發表를 하는 3萬鑛業會議에 참석, 講義도 하여 크게 囑采도 받았었다. 이럴수록 日本人들은 韓國사람인 내가 더욱 미웠으리라.

그러나 韓國人인 나를 미워해도 學問은 미워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후부터 研究에 더욱 피치를 가했다.

이러한 하나 하나의 契機들은 日帝下에서 教授職을 지키게 한 推進力이 되었다.

그 후 내가 講義를 하고 있던 어느날 당시 大邱日報 마스모도記者가 찾아와 다급히 面會를 요청했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해서 授業도 마치지 않은 채 그를 데리고 내방으로 왔다.

마스모도記者는 新聞紙에 싸가지고 온 石榴石을 내보이며 이것을 무엇에 쓰이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石榴石은 빨간색을 띠고 있으며 주로 時計에 寶石대신 사용되는 것이다.

나는 그가 내민것을 直感으로 石榴石이라 생각했는데 한주먹 정도 밖에 안되는데다 그것마저 너무 잘아서 使用價値가 없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잘아도 많은 量이면 이를 粉77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여 말하자 그는 집에 약간 또 있다는 혼자 말을 남기고 가져온 石榴石을 내 테이블 위에 던져버리고 나가 버렸다.

마스모도記者가 돌아간 후 나는 무심히 石榴石을 보던 중 結晶이 있는 듯한 石榴石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 結晶體가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 핀셋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던중 쌀토막만 한것이 섞여 있어 더욱 자세히보니 그것은 石榴石이 아니었다.

■ 다이아몬드 原石 發見

나는 그때부터 이상히 여겨졌다. 石榴石 속에서 발견된 쌀 반토막만한 것을 顯微鏡으로 擴大 여러 方法으로 試驗을 해 본 결과 다이아몬드 原石이라는 確證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 엄청난 事實을 발견하고도 널리 알릴 수 없는 苦痛을 겪어야 했다.

理由인즉 당시 日本東京帝國大學 地質學科 某教授가 『極東地域에서는 地質學的으로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오래전부터 발표 主張해

★ 特別企劃 ★

와 學界는 말할 것도 없고 一般社會에서 까지 그의 말이 定論으로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 狀況에서 내가 새삼스럽게 그의 定論을 뒤엎고 極東地域에 다이아몬드原石이 발견되었다 하면 그 波紋은 어찌하겠는가. 앞서 내가 알아낸 것이 다이아몬드原石에 틀림 없으면 아무 일이 없겠지만 잘못되어 다이아몬드原石이 아니면 免職까지 당해야 할 판이므로 경솔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우연이라 하지만 순간 얻어낸 確證을 쉽게 拋棄할 수 없어 쌀반토막만한 다이아몬드原石을 한참 주무르며 책상머리를 이리 저리 헤메다 『내집에 石榴石이 또 있다』는 마스모도記者의 말이 번뜩 생각에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당시 봉래동에 있었던 大邱日報 支社에 電話를 걸어 찾아가겠다고 알리고 곧바로 뛰쳐 나갔다. 그곳에 와보니 마스모도記者는 없고 같은 성의 松本이라는 사람이 나를 맞으며 왜 마스모도記者를 찾느냐 했다. 나는 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 주었다. 그가 내게 試驗의뢰한 石榴石이 아무리 보아도 보통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結論을 내리기 위해선 더 試驗이 필요하므로 마스모도記者집에 있는 石榴石도 가져 보았으면 해서 그를 찾아왔다 고 했다.

내 말을 들은 松本은 마스모도記者의 行方은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石榴石에 대한 關心이 컸다. 그는 쌀 반토막만한 것이 石榴石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꼬치꼬치 물으며 내 말을 재촉했다.

나는 하는 수없이 『그것은 다이아몬드 原石같다』고 말하자 그는 깜짝 놀라는 表情을 하더니 그 자리서 電話受話器를 들어 總督府와 東亞日報 등 각 新聞社에 『다이아몬드가 發見되었다』고 알렸다.

나는 그때 무척 당황했다. 만일 事實이 아니면 그로 인해 일어날 不吉한 일들이 내 腦裏에 走馬燈처럼 스쳐갔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보니 東亞日報 등 각 新聞에 「極東地域에서 다이아몬드가 發見되었다」고 大書特筆로 報道되었다.

나는 그 記事를 한자도 빼지 않고 詳細히 읽은 후 태연히 學校에 나가 講義를 했다.

그때 總督府 殖産局長으로부터 다이아몬드原石을 가지고 들어 오라는 傳喝이 왔다.

나는 講義도중 그가 보내준 車를 타고 總督府로 갔다. 殖産局長은 나를 반가히 맞으며 가지고 간 다이아몬드原石을 요리저리 살펴 보았다.

난 그에게 다이아몬드原石을 入手하게 된 動機와 다이아몬드라는 確證을 얻기까지의 說明을 자세히 들려 주는 동안 전직원들까지 둘러가며 관찰하고 누군가가 내 寫眞을 찍어냈다.

一躍 大學者가 되다

殖産局長과 만나 이야기한 며칠후 日本서 發行되는 「후징구」라는 雜誌와 大阪東京新聞에 『韓國京城鑛山專門學校 朴東吉教授가 極東地域에서 다이아몬드原石을 발견했다』고 내 寫眞과 더불어 크게 報道되었다. 나는 다이아몬드發見을 契機로 一躍 大學者가 되어 버렸다.

國際적으로 알려진 내게 京城鑛山專門學校 교장마저 『朴教授 덕분에 내년 우리學校 入學生이 대폭 늘어 나겠다』고 기뻐하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혹시 錯覺이라도 하지 않았나 해서 항상 조마 조마한 마음이 가지지 않았다. 이 같이 마음 조리다 그 해를 넘기고 그 다음해 日本 各大學 有名教授 2百餘名이 참석하는 地質學會가 서울서 열리게 되던 때의 일이 생각난다.

나는 이 會議의 開催에 앞서 日本東北帝大 恩師가 오는날 驛에 나가 迎接을 했다.

나의 만난 恩師들은 물론 校分도 없는 教授들까지 내게 人事를 청해오며 다이아몬드原石을 보여 달라고 야단이었다.

그때 日本地質學會는 현 中央廳앞에 있었던 地質調査所에서 열렸는데 나는 다이아몬드原石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들 2百餘教授들은 하나하나 둘러가며 好奇에 찬 눈으로 살살이 살펴 보았다.

다이아몬드原石을 살피는 恩師와 教授들을 쳐다보고 있던 나는 感懷가 컸다.

제 아무리 韓國사람을 日本사람이 賤待해도 學問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다시금 느껴졌다.

이렇게 日本學界와 一般社會에 더욱 내 이름이 알려지자 한편으로는 귀찮은 일도 없지 않았다.

京都帝大와 日本內 數個企業에서 다이아몬드 原石을 高價로 팔라고 성화였다.

그러나 나는 數億을 주어도 팔 수 없다고 이들의 提案을 모두 拒絕했다.

그후 日本大阪에 出張을 갔을 때의 일이다.

내가 日本大阪에 到着하던 날 新聞夕刊에 「다이아몬드發見者 韓國 朴東吉教授가 나카로시마 호텔에 投宿했다」고 까지 보도되었다.

新聞을 읽은 大阪 有名人士들이 내가 묵고 있는 호텔에 찾아와 人事를 하고 돌아가는가 하면 저녁 招待까지 했다. 이때의 기분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았다.

만일 내가 돈을 탐내 그 다이아몬드 原石을 팔아 넘겼더라면 이들이 찾아와 人事를 할리 없고 여기 저기서 招待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日本 다이아몬드會社視察

이곳에 滯留중 大阪高等工業學校 恩師의 저녁 招待를 받고난 나는 중국 요리집서 아마세끼가에 있는 다이아몬드會社 社長을 紹介받았다.

이 會社는 지금처럼 다이아몬드로 사치품을 만드는 會社가 아니고 잠수함과 비행기에 쓰이는 工具를 만들어 日本 陸軍省에 納品하는 會社이므로 그곳을 視察하려면 憲兵隊의 許可가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日本人 社長은 내게 『당신은 다이아몬드 發規者이므로 특별히 許可없이 자기 공장을 案内 관람토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날 社長의 案内로 恩師와 함께 다이아몬드會社工場을 관람한 나는 그곳이 너무 조용한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0餘個의 방이 있는 工場內部엔 機械소리만약간 들릴뿐 사람의 말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상히 여긴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하느냐고 물으며 그곳에 들어가려 하자 社長은 나를 制止하고 대신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곳 熟鍊된 職工들은 우리 보통 사람과 달리 말도 듣지도 못하는 聾啞라 했다.

또 그 社長은 다이아몬드 原石의 精密鍊磨와 秘密保障등 作業의 能率化를 꾀하기 위해 60명을 10年間 양성 起用하여 會社에서 마련해놓은 私宅에서 集團生活을 하도록 했다 한다.

社長의 이야기를 듣고서 理解를 한 우리는 브라질産 다이아몬드가 한바가지 정도 있는 陳列室 등을 구경하고 셋이 저녁을 먹으러 갔다. 그 자리서 社長은 내게 겨울철 처마밑 고드름 모양의 새빨간 것을 하나주며 膳物이라 했다. 생각지도 않은 膳物을 손에든 나는 이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느냐고 묻자 社長은 '날더러 燈火不明이라 하였다.

■ 우리나라海南産 明礬石 으로 人造루비 製造

그의 말에 의하면 日本은 우리나라 全羅南道海南서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明礬石을 개발, 興南肥料會社 地下室에서 獨逸人 技士 2명을 초빙하여 人造루비를 만든다 했다. 이어 그는 크롬만 섞으면 着色은 自由自在여서 이를 브라질 熱帶地方 사람의 嗜好에 맞는 빨강색의 귀걸이 목걸이 등 裝身具를 만들어 브라질産 다이아몬드 原石과 맞바꾸어 오는데 이의 製造原價는 不過 5錢이라며 방금 내게준 것도 興南肥料會社 地下室에서 만들어진 人造루비라 했다.

그의 말을 듣고보니 너무 어처구니 없었지만 日帝下였기 때문에 韓國人 教授라 해도 그런 것은 미처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이와 같이 日帝下에서 波瀾萬丈한 學窓時節과 講壇生活을 하면서도 未來를 위해 오직 學問에만 몰두했었다.

다이아몬드 이야기 끝에 한가지 指摘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덧붙이고자 하니 많은 參考있기 바란다.

★ 特別企劃 ★

요즘 發刊된 일부 鑛物學책에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톱으로 자른다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모두 알고 있듯이 다이아몬드는 9個 對稱面을 이루고 있다.

다이아몬드結晶을 자를 때는 자르고자 하는 對稱方向에 톱을 대면 잘라진다.

그런데 이곳에 사용되는 톱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강철로 만든 얇은 합금이 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은 잘못된 책이 써 있는 것을 額面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 地質調査所와 燃料選鑛 研究所 통합

나는 1938년 5월부터 京城鑛山專門學校專修科長으로 있다 해방을 맞이했다.

解放되던 해 9월초부터 肋膜炎으로 死境까지 이르러 큰 困辱을 치르고 막 회복되던 11월 美軍政廳商務部로부터 地質調査部長兼 燃料選鑛研究所長으로 任命받았다.

그때 商務部長은 吳楨洙씨.

몸이 衰弱할대로 衰弱해진 나는 어쩔 수 없이 地質調査部に 나가 軍人들의 護衛를 받으며 就任만 하고 나가지 않았다.

그런 나를 軍政廳에서 가만 돌리가 없었다. 商務所에 들어 오라는 電話가 왔기에 갔더니 責任을 맡고서 出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며 내일부터 正常出勤을 해달라는 것이다.

商務部長 吳楨洙씨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해서 하는 수없이 다음날부터 출근, 二元化된 地質調査所와 燃料選鑛研究所의 統合整理作業을 서둘렀다.

그러나 이곳 既存멤버들의 反撥로 統合整理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 두 研究所의 總職員은 1百 50餘名——不 必要한 職員이 半以上이다.

70명 이상 減員이 불가피한 統合整理作業을 極秘에 推進했는데도 職員들에게 알려져 두 研

究所 분위기는 매일 스산했다.

일부 職員은 總務課長을 찾아가 自己말을 잘못해서 減員對象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공갈과 협박을 하는가 하면 毆打까지 하여 總務課長職을 마다하고 4명이나 그만 둔 일도 있다.

그뿐이 아니었다. 나를 찾아와 同僚들의 中傷 謀略을 해도 反應이없자 退勤시간에 饜應까지 提案해왔다. 이를 모두 거절한 나는 초연히 지내다 職員들이 統合整理作業에 關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진 46년 4월 두 研究所를 地質鑛山研究所로 통합하고 70명을 除外한 나머지 80餘名을 減員시켜 버렸다. 그후부터 地質鑛山研究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本然의 業務를 遂行할 수 있었다.

또 나는 韓民族의 宿願인 解放을 마지한지 1년도 채 안되어 地質學界의 새로운 秩序를 찾기 위해 苦心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大韓地質學會 창립

우선 地質學會를 만들어야 하겠는데 당시 우리나라 사람으로 地質學을 專攻한 사람은 모두 9명뿐이었다. 그중 한사람은 죽고 또 한사람은 행방불명이어서 남은이는 겨우 7명——그때도 나는 46년 4월 나까지 7명만으로 大韓地質學會를 設立했다. 會長職은 내가 맡고 幹事엔 鄭昌熙씨.

그때는 學會費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형식은 갖추어야겠기에 봄가을에 걸쳐 總會는 꼭 했었다. 總會때면 經費가 없어 城北洞에 있는 절과 서울工大 옆 잔디밭을 전전하며 즉석에서 우리들 호주머니를 털 돈으로 敬宗과 오징어 몇마리를 놓고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같이 만들어 이어온 大韓地質學會 會員數가 지금은 6百餘名——어느 學會 못지않은 大家族과 함께 활발한 움직임을 보노라면 마음 흐뭇하다. 우리는 그동안 이룩해 놓은 科學技術을 토대로 重化學工業의 實現을 위해서는 地質學 등 基礎科學의 育成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우리 다 같이 많은 씨앗을 뿌려 많은 收穫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문책·차준진)